Eugene's FICC Update

유진투자증권

Fixed Income 김지나_ 02)368-6149_ jnkim0526@eugenefn.com Economist 이정훈_ 02)368-6138_ jhoonlee@eugenefn.com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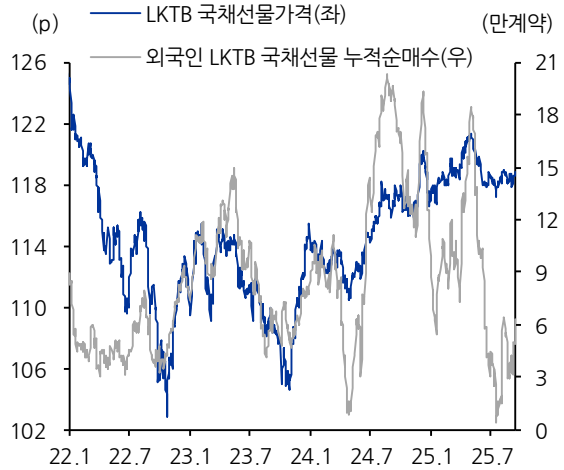
Fixed Income

(단위: %,bp, 틱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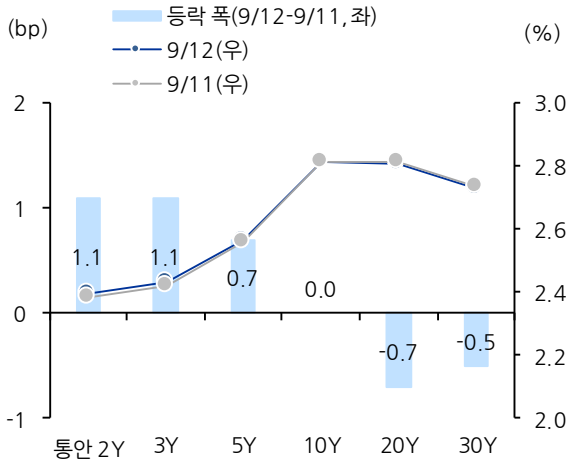
		9/12일	1D	1W	YTD
국내 채권	한국 국고채 3년물	2.431%	1.1	-2.9	-16.5
	한국 국고채 10년물	2.813%	0.0	-4.2	-4.2
	장단기금리차(10년-3년,bp)	38.2	39.3	39.5	25.9
	3년 국채 선물(KTB)	107.28	-5.0	6.0	63.0
	10년 국채선물(LKTB)	118.82	-1.0	66.0	190.0
해외 채권	미국채 2년물	3.559%	1.4	4.9	-68.0
	미국채 10년물	4.068%	4.6	-0.8	-50.5
	장단기금리차(10년-2년,bp)	50.9	47.7	56.5	33.3
	독일국채 10년물	2.712%	5.6	4.7	34.9
	호주국채 10년물	4.218%	-1.4	-12.3	-15.0

외국인 3년 국채선물(KTB) 수급

외국인 10년 국채선물(LKTB) 수급



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국내 채권시장 동향

- 국내 채권시장 플래트닝 마감. 단기물 소폭 상승했지만 장기물 보합권에서 마감.
- 안정적인 수준이었던 미국 CPI 결과와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 상승 영향으로 장기물 하락 출발. 이후 방향성을 견인할 만한 뚜렷한 국내 재료가 없는 가운데 외국인 국채선물 거래에 연동되는 흐름.
- 오후 들어 장기물 하락폭 반납 진행.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수에도 월요일 국고 10년물 입찰을 대비한 수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.

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미국 채권시장 약세 마감. 차익 실현 및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 영향.
- 약세를 견인할 만한 미국 내 특별한 재료는 없었으나 전거래일 장중 미국채 10년물이 4%를 하회하는 등 최근 강세폭 빠르게 진행된 영향으로 차익실현 발생.
- 피치의 프랑스 신용등급 검토를 앞두고 강등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한 가운데 영국 장단기 기대인플레이션 지표 상승 등 유럽권에서 부정적인 재료 발생. 유럽, 미국 등 금리 상승 확인.

자료 출처: 연합인포맥스, Refinitiv, 유진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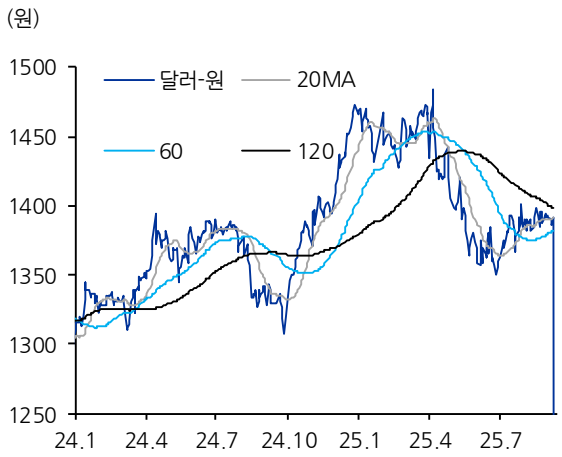
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일 뿐이고, 특정주식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. 본 자료는 담당자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나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지만,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.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고객의 투자의사 결정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아래 이루어져야 하고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존하여 행하여진 일체의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. 아울러 본 자료는 당사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/전송/인용/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

FX & Commodit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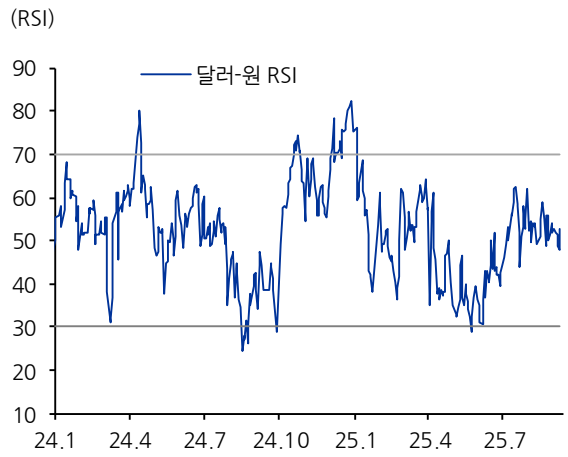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 $)

		9/12일	1D	1W	YTD
환율	원/달러	1,388.20	-0.3%	-0.2%	-5.7%
	달러지수	97.61	0.1%	-0.1%	-10.0%
	달러/유로	1.173	0.0%	0.1%	13.3%
	위안/달러(역외)	7.12	0.2%	0.0%	-2.9%
	엔/달러	147.67	0.3%	0.2%	-6.0%
	달러/파운드	1.356	-0.1%	0.4%	8.3%
	헤알/달러	5.36	-0.7%	-1.1%	-13.4%
상품	WTI 근월물($)	62.69	0.5%	1.3%	-12.6%
	금 현물($)	3,643.05	0.2%	1.6%	38.8%
	비트코인($)	117,265.00	2.0%	4.7%	24.6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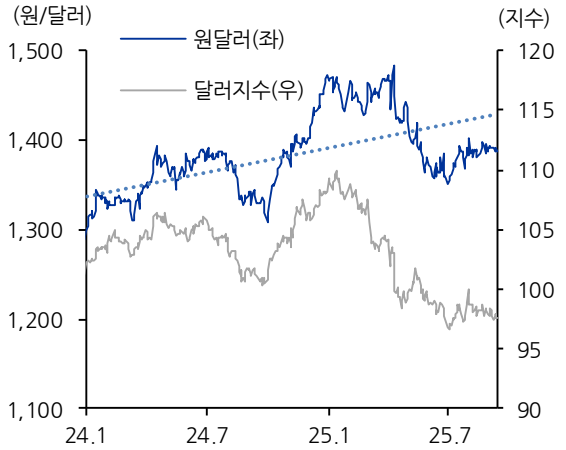
달러-원 환율 및 이동평균선



달러-원 환율 상대강도지수



달러-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동향



원달러 환율 동향

- 달러-원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-3.60원 하락한 1,388.20원에 마감. 야간거래에서는 1,395.40원 마감.
- 간밤 미국 CPI는 시장 예상치에 전반적으로 부합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은 유지. 달러-원은 -1.80원 하락 출발.
- 그러나 정작 개장 후에는 뚜렷한 방향성 보이지 않고 대체로 좁은 레인지에서 횡보. 이날도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1.5조원 가량 순매수하면서 환율 하락 압력으로 작용.

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

- 달러 인덱스는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 여파에 소폭 상승.
- 금융시장은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 증시 개장을 앞두고 달러는 강세. 이날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권 국채 매도세도 거셌음. 피치는 결국 프랑스 국가 신용등급을 'AA'에서 'A+'로 강등.
- 그러나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은 상당 부분 예견된 일이었고, 이후 미국 경제지표도 부진하면서 달러는 반락. 미시간대 소비심리 예비치는 55.4로 시장 예상(58.0)을 하회. 1년 기대인플레이션은 4.8%로 동일.
- 이번주 달러-원 환율은 1,382 ~ 1,397원 등락 예상. 주중 FOMC 및 BOJ 금정위 예정.